

<바로지금>(여성노조 2) [9/12]

제목:[2025년 가상시나리오]왜 바보같이 참고만 산 것일까

[바/로/지/금] 창간호

<2025년 가상시나리오>

왜 바보같이 참고만 살았던 것일까?

김혜선 사무국장

21세기! 첨단과학의 시대에 과로사와 영양부족, 질병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50세로 줄었다.

미래씨의 주름진 눈가에 굵은 눈물이 흘러내린다. 추운 겨울을 온기없이 보낸 방바닥 냉기는 늙은이의 등골을 휘감는다. 둘째 딸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휴일도 없이 일하는 둘째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다. 정규직과 임시직비율이 20:80으로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든 상황에서 둘째 딸은 언니가 특별관리 상자(보훈대상자처럼)인 덕분에 다행히 정부기관에 정규직 끝자리 하나를 어렵게 얻을 수 있었다. 결혼 전까지라는 단서가 붙어서.

보통 일반사무직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하루 평균 14시간 일하고 연장까지 하는 날은 16시간에서 18시간까지 일한다. 둘째 딸도 10시간 넘게 직장에서 일하고,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밤에 아르바이트를 따로 하고 있다.

환경파괴 정도가 바닥을 치고, 지속적인 유전자조작식품섭취로 인한 호르몬 변형,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으로 인해 여성 중 가임능력을 가진 사람이 10%로 급격히 감소했다. 여성은 첫 월경을 시작하면 국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 여성의 신체 이곳저곳을 검사한 후 - 유일하게 국가에서 무료로 진료해주는 경우다 - 에 건강한 난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국가 재생산부에 등록되어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 특별관리대상자가 된 큰 딸은 한 달에 한번 휴가를 받아 나올 뿐 35세가 되기 전에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한다. 큰 딸의 인생은 먹는 것과 사생활을 통제 당하며 국가의 재생산을 위해 바쳐야만 하는 것이다.

1999년 그 때, 이 모든 것의 출발이었던 한미·한일투자협정을 저지해낼 수 있었다면..... 여성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임신테스트를 받아야하고, 생리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생리대까지 꺼내보여야 했던 때. 여성들이 찢려나가고 실업자들이 넘쳐날 때, 그래도 그 때는 가슴속에 분노가 살아있었다.

그러나 싸우는 사람은 소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이라도 피해보려고, 때로는 혼자서만 고민하다 좌절하고, 나와 내 가족만이라도 살아보겠다고 그 싸움을 외면했다. 미래씨도 그랬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신은 움츠러들고 있었다. 왜 바보같이 자본가에게 꾸준히 기대를 한 것일까?